

동네책방들 축제, 영화와 책을 노래하다

광주극장 81주년 기념 북페어 '오늘산책 두번 째, 취향의 공동체'

22일 '영화의 집'서 광주·전남·전북 9곳 참여
다양한 독립출판물 판매...세미나·공연·전시
日영화 '행복한 사진' 상영...31일까지 영화제



동네책방 '책과 생활'

일본 영화 '행복한 사진'은 사진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15년간 사진을 제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편집자들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영화의 원작인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엮다' 역시 흥미로운 책이다.

지난 2013년 개봉작이었던 '행복한 사진'(22일 오전 10시30분 상영)이 광주극장 81주년 영화제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가 상영되는 날에는 작품과 딱 어울릴만한 흥미로운 행사도 마련돼 있다. 개성 넘치는 동네책방들의 축제다.

최근 광주에도 각각의 개성을 갖춘 작은 동네 서점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 반갑다.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도 있고 문학 등 특화된 서점도 눈에 띈다.

오는 22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광주와 전남북 작은 책방들이 함께하는 북페어 '오늘산책 두번 째, 취향의 공동체'가 열린다. 독립출판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책의 축제로 첫번째 행사는 지난 4월 책방 4곳이 모여 진행했었다.

이번 두번째 행사에는 광주의 '검은 책방 흰 책방', '공백', '라이트 라이프', '동네책방 숲', '연지 책방', '책과 생활', '파종모종'과 순천의 '그냥과 보통', 전주의 '에이커 북스토어' 등 모두 9곳이 참여한다.

책방은 물론 제작자, 작가, 기획자, 관람자가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영화, 음악, 책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책방 공간'에서는 각 책방 마다의 색깔이 담긴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판매한다. '음악공간'에서는 축하 공연이 아닌, 음악과 함께 책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어떤 책과 글



영화 '행복한 사진'

을 통해 만든 노래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 등을 나누는 자리다. 하인석, 이진우, 우물 안 개구리, 김유일, 바다 프로젝트가 함께 한다.

'이야기 공간'은 작가, 제작자, 평론가, 기획자가 함께 하는 코너다. 독립출판물을 직접 펴낸 윤연우&정미정씨가 '작업자의 성실한 기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냥과 보통' 이로운, 라이트 라이프 김대선, 연지책방 민희진씨 등 책방 주인들과 서울 문화공간 보안여관 최성우 대표, 전라도닷컴 황종년 대표도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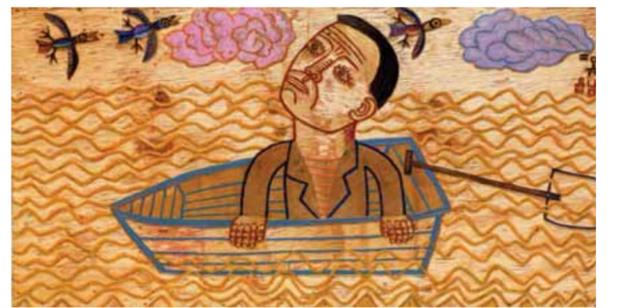
영화의 집 1층 박면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책의 한 페이지 속 한 문장을 만나볼 수 있다. 각각의 문장이 담긴 북을 담은 판매도 할 예정이다.

행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야기 공간은 사전 신청 후 입장 팔찌 배부(참가비 1만원)한다. 영화 티켓은 6000원이다.

한편 광주극장 81주년 영화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400의 구타' 상영 후 김형중 문학평론가 토크, 프랑스 재즈 트리오 'Yakeen'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또 다른 꽃'...윤남웅 개인전



'遊流圖(유류도)'

26일까지 DS갤러리

일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윤남웅 작가가 20일부터 26일까지 DS갤러리에서 '또 다른 꽃'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바람 그리고 놀다', '꽃' 시리즈 등 최근작 20여점을 선보인다.

'遊流圖(유류도)'는 홀로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있는 청년 남성을 그린 작품이다. 바다와 어울리지 않는 양복 차림새는 어색한 분위기를 풍긴다. 외롭게 보이지만 하늘에 떠있는 구름, 새들이 적적함을 달래준다.

'바람 그리고 놀다' 시리즈에는 여러

명이 등장한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서로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서 따뜻한 마음씨와 온정이 느껴진다. 그밖에 웃을 흠뻑 던져버리고 고단하게 몸을 누인 아저씨가 등장하는 '낮잠'은 지친 일상 속 잠시나마 여유를 전해준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윤씨는 중국 국노미술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광주MBC 수목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 서울에서 개인전 6회를 열고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4), 한태수교 50주년 기념전(2009·태국) 등에 참여했다. 광주 아트시내버스에도 참여해 '봉선37번'버스를 꽃 작품으로 꾸몄다. 문의 062-233-3919. /김용희기자 kimyh@

광주문예회관 '작은 그림 큰 사랑'전

11월 13일까지...30만~300만원 작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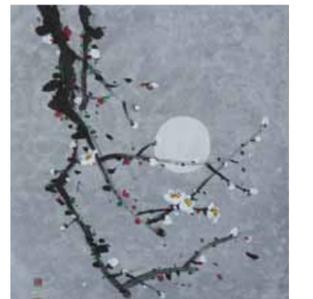
'그림도 장만하고, 이웃사랑도 전하고.'

광주문예회관(관장 양효섭)이 오는 11월 13일 까지 대극장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작은 그림 큰 사랑'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자선 전시회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분야 대표 작가 43명이 함께한다.

참여 작가는 강성근, 김준호, 박지택, 신동언, 한희원, 송필용, 이기원, 정명돈, 허달용 등으로 모두 43점이 출품됐다. 판매가는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다.

작품 수익금 일부는 광주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에 기부한다. 관람시간은 공연 없는 날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 공



허달용 작 '월야관매'

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전일보 '국제포토저널리즘'전 개막

오늘부터 옛 충남도청사...6개국 사진기자 257점 전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국제 포토저널리즘 페스티벌 '비자 뿌르 리마주-페르피냥(Visa pour l'Image-Perpignan)'에 전시된 작품들이 대전을 찾아 온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대전일보사가 주최하고 대전시와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후원하는 대전 국제포토저널리즘전(Visa pour l'Image-2016 Daejeon)이 열린다. 20일부터 2017년 1월20일까지 대전근현대사전시관(옛 충남도청사).

'오늘 비극의 기록...내일 희망을 그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6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미국·호주) 언론매체 사진기자 11명 작품 257점을 선보인다.

첫번째 섹션은 한국전쟁 중군기자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의 작품 30점을 한국

최초로 선보이는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 100주년 기념 사진전'이다. 던컨은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폐허가 된 도시, 날브라진 주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취재·보도했으며 화보집 'This is War!'를 펴내기도 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파블로 피카소의 사생활도 공개된다.

두번째 섹션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다룬다. 매그넌 소속 제롬 세시니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알레포 거리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알프레드 야곱자데는 IS에게 납치된 아지다족 소녀들이 탈출, 민병대에 입대해 맞서는 과정을 연작 시리즈 형태로 보여준다.

2015년 풀리처상 사진부문을 수상한 다니엘 베레올라가 찍은 에볼라가 휩쓴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도 볼 수 있다.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22일 오후 2시 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중군기자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의 한국전 사진.

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AFP 서울특파원 에드 존스와 파리마지의 알프레드 야곱자데가 참여하는 '포토그래퍼 강의 및 워크숍'이 무료로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대전 대흥동 골목길 일대에서는 '테크닉 워크숍 & 포트폴리오 리뷰'(입장료

포함 2만원)가 진행된다. 전시 입장료 성인 1만2000원, 대학생 1만원, 초·중·고생 8000원(학생 10인 이상 단체 5000원). www.daejeonphoto.com. 문의 042-251-3801~2.

/대전일보=박영문 기자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 |
|--|--|
| <p>★ 7월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7월 / 분양일 실시일 이후 시 약 10% 할인한다.</p> <p>소노벨리체 송아마을 가제 미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명골프(프렌즈+) 리조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암 신규회원 특별혜택</p> <p>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선수가 주중 50% 최상 회원 요금의 50% 최우선기 우선 분양</p> | <p>★ 24년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행사를 무료로 베풀어 드립니다.</p> <p>전국 12개 지역 전호투 - 11월 11일(화) 12시 00분(12시 00분)부터 12시 00분(12시 00분)까지 선착순 분양</p> <p>전국 12개 지역 전호투 - 11월 11일(화) 12시 00분(12시 00분)부터 12시 00분(12시 00분)까지 선착순 분양</p> <p>전국 12개 지역 전호투 - 11월 11일(화) 12시 00분(12시 00분)부터 12시 00분(12시 00분)까지 선착순 분양</p> <p>전국 12개 지역 전호투 - 11월 11일(화) 12시 00분(12시 00분)부터 12시 00분(12시 00분)까지 선착순 분양</p> |
|--|--|

신도리니움의 하얀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